

## 총장공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 봉안식 거행

총장공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이 2022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제430회 행주대첩 기념제가 개최되는 3월 14일 행주산성 총장사에서 행주대첩 기념행사 직전에 총장공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봉안식은 고양시 제전위원회의 고유례로 진행된다.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 제작은 20여 년 동안 영정을 도난당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복원이나 제작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대중회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제작을 요청하였고, 특히 권해옥 대중회 회장과 권건중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이 고양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을 제작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표준영정 제작 예산 8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하였다.

또한 권율 도원수 표준영정 제작에 안동권문의 후손인 권오창 화백이 선정되어 2021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권오창 화백의 동강공중화화연구소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권해옥 회장은 권율장군은 임진왜란 시 행주대첩과 이치대첩 등을 통해 풍전동화와 같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권율이라고 말하듯이 권율장군은 행주대첩 때문에 선무일등공신이 됐다. 따라서 영정도 이에 걸맞게 제작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안동권씨 모든 족친들은 행주산성에 위치하고 있는 동상 모습처럼 감옷을 입은 권율장군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장군상으로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병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권율도원수는 문과 출신이고 조선시대 장군 복식을 한 장군상으로서의 표준 영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문관 관복 공신상을 제작하여 표준영정심의위원회 기준에도 부합하여 표준영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가제도를 준수하여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 영정 기준에 맞게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권오창 화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정·동상심의위원



회의 총 4차례의 철저한 고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세심한 심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봉안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안동권문은 조선시대 문과급제자를 359명이나 배출한 명문거족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인물은 총장공 권율도원수가 처음이다.

향후 고양시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가표준영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안동권문에서도 권율도원수의 표준영정 제작을 계기로 국가 위기 시 나라를 구한 권율도원수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선양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대중회에서는 권율도원수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 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문재인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는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에게 국가행사로 격상할 것을 공약으로 건의를 한 바 있다. 안동권문 100만 족친은 행주대첩 기념행사도 국가행사로 격상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권행완 편집국장

## ‘1402 강리도’ 설명회 개최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한 설명회가 2월 16일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해옥 회장,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이경자 문학박사,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영상, 권오돈, 권광택 삼임위원,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1402 강리도>의 저자 김선홍 전 외교관, 김광규 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저자 김선홍 전 외교관은 양촌 권근 선생이 강리도에 발문을 쓰셨다. 만약 양촌 선생의 발문이 없었더라면 강리도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도 모를 뻔 했다.

양촌 권근 선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세계지도가 1402년 음력 8월에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강리도의 원본은 사라지고 없고, 1480년 경 비단 바탕에 재현한 지도가 일본에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일본 류코쿠대학



이 소장하고 있다. 강리도에는 다뉴브강, 알프스산맥, 지중해, 지브롤터해협, 카스피해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리정보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지도 역사상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지도가 바로 강리도라고 말했다.

권해옥 회장은 외교관이면서 수년 동안

강리도를 연구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문중으로서 고맙고 반갑고 영광스럽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제작한 강리도의 세계사적인 가치를 밝혀 주셔서 후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 설명회는 권영상 상임위원이 주선하여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8면>

### 社告

##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및 회장 후보 추천 안내

정관 제13조(총회) 및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정기총회와 회장 추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정기총회

가. 일시: 2023.5.24.(수) 11:00  
나. 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지하철 1호선, 2호선 4번 출구 이용)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의안:

- 2022년 회계년도 결산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승인  
- 제19대 회장 추대 및 감사 선출  
- 기타안건

#### ○ 회장 추대를 위한 서류 접수

가. 구비서류  
-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사진 첨부)  
- 피추천자의 공적서 1부  
- 추천서: 임원 30명 이상 추천(대중회 소정양식)  
\*정관 제8조에 정한 임원의 추천, 단, 임원 1인당 1회만 추천 가능

\*추천인 자격: 현 임원으로 2017년 이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임원

\*임원: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상임위원), 파종회장협의회장, 지역총친회장협의회장, 이사, 중무위원, 전례위원회위원장, 홍보편집위원회위원장, 총사연구위원장, 문헌편찬위원회위원장, 청장년회장협의회회장

\*임원 명단과 정관은 안동권씨대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검색 가능함)

나. 접수방법: 피추천인(회장후보) 관련 구비서류를 원비하여 대중회 사무처에 접수(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 접수기간: 2023년 4월 24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접수분  
라. 접수처: 안동권씨 대중회 사무처  
- 주소: 우)0258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 전화번호: 02-2695-2483~4

2023년 3월 1일  
안동권씨 대중회장

### 2023년 3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 <임원 회비>

부 회장  
권영상 상임위원(변호사) 1,000,000

이사  
권영갑(경기수원) 300,000

중무위원  
권혁원(경기수원) 200,000

합계: 1,500,000원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 총장공 권율도원수 국가표준영정 봉안식 및 행주대첩 기념 행사



총장공 권율 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이 문화체육부 최종심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국가표준영정 봉안식과 제430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안동권문 종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23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 ❖ 장소: 행주산성 총장사
- ❖ 문의: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